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 완성시킨다

시, '함께해서 행복한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비전으로 7대 추진전략 제시…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목표

전주시가 올해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건강·의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는 등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독자모형을 구축키로 했다.

시는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단장과 박주종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민간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1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단장과 박주종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민간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1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함께해서 행복한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 7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7대 추진전략은 ▲어르신·장애인·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의 안정화 및 고도화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의 연계·조정 및 고도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보호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통합돌봄 서포터즈 확대 운영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완산구에서만 추진되던 사업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 총 2100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통합돌봄 생활방역 지원단을 새롭게 설치·운영하는 등 방역 분야도 강화된다.

시는 이와 함께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문진료 ▲안심복약 지원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 ▲통합인지훈련 ▲응급 간병 지원 ▲영양더하기 ▲케어안심주택 지원 ▲주거환경 개선 ▲건강펜 질병예방사업 등 19개 공통사업은 물론이고 17개 대상자별 특화사업과 8개의 보건복지부 연계사업까지 총 44개 사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특히 평화동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민이 지역민을 도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 지지케어' 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완성시킨다는 복안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해까지 지역 내에서 주거, 복지·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조성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전주시, 보건 · 의료분야 7대 추진방향 제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전주시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보호 안전망도 촘촘히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치유상담소 역할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주력키로 했다.

시는 4일 보건소 신년브리핑을 열고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보건·의료분야 7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7대 추진방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일상의 건강을 찾아주는 건강실천 환경 조성 ▲행복한 노년, 건강으로 삶의 질 향상 ▲치매환자·가족·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도시 실현 ▲건강안전 환경 조성과 의료 공공성 선도 등이다.

감염병관리과 신설로 감염병 대응 · 관리 강화
취약계층 위한 의료 보호 체계 구축 · 정신건강도시 실현

시는 우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약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더불어 대상자별 시기에 맞춘 예방접종을 실시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백신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검진 활동도 벌인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장애인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기저귀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공을 들인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놓친 시민들의 일상의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모바일을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과 비만을 예방하고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오늘부터 근력업!'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금연클리닉, 이동구강보건센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건강' 모바일 앱을 활용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펼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키오스크를 이용한 인지강화 훈련과 태블릿 기기로 그룹별 인지학습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ICT 기반 체험형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신규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시는 마음치유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 방역에도 힘쓴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소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알콜과 도박, 마약,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하고 재활을 돕는 데에도 주력한다.

끝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하고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설맞이 청소종합대책' 가동

전주시가 설 연휴기간 시민들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분리배출 홍보에 중점을 둔 '설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동별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일제대청소를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설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한 오는 10일까지 청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설 연휴기간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기동처리반을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쓰레기 수거 일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과일박스와 스티로폼 등 선물포장 박스의 급증으로 수거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과 동 자생단체와 함께 전주형 '제로웨이스트 운동'도 벌인다. '전주시, 가정의 용기가 필요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운동은 식자재 구입 및 음식물 포장 시 가정의 용기를 가져가 직접 담아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연휴 이후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적치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터미널과 한옥마을 등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마무리 청소에 나설 예정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설 명절 기간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주형 제로웨이스트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한다.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음식과 선물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부서별 장보기 장소와 일정을 분산해 추진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남부시장의 경우 4일부터 7일까지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신중앙시장은 오는 5일까지, 중앙상가시장은 예산 소진 시까지 사은품 증정 행사를 갖는다. 상인회는 매일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소독작업을 펼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6만3,283원으로 대형유통업체의 36만2,680원보다 9만9,000원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금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과 최대 20%까지 캐시백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인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를 이용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설 명절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역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이용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